

후배들의 소중한 인생 멘토가 되다

화순 도곡초 63회 졸업생, 재학생 만남 시간 가져

화순 도곡초등학교(교장 안길승)는 도곡초 63회 졸업생(서영호)을 인생신배 멘토로 초대하여 4~6학년 후배들에게 '꿈이 살아되기 위해서'라는 주제로 영어체험실에서 소중한 만남을 가졌다. 서영호 멘토는 도곡초-도곡중-농주고-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현재 소아과외과 교수 공중 보건의를 하고 있으며 도곡초에서 근무하는 김점자 조리원의 아이이기도 하다.

예 의사를 하겠다는 아이들의 질문에 선배 멘토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식도암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처럼 똑같은 고통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꼭 암을 고치는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했어"라고 대답했다. 특히 타인과 비교하는 삶을 살지 말고

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해 보라고 말했다. 서영호 멘토는 "과거의 나 보다 현실의 내가 발전적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았을 때 꿈은 현실이 되고 어느덧 내 삶으로 자리 잡는다"고 말했다.

6학년 송수민 학생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소중하듯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찬을 많이 하라는 말이 마음속에 와 닿았어요"라 칭찬을 받았고, 수고했고, 고마워 등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았어요"라고 말했다.

진로 담당 김경환 교사는 "모교를 졸업한 선배의 진솔한 이야기였기에 아이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도곡초를 졸업한 많은 선배님들이 이 소식을 듣고 후배들을 위한 좋은 밑거름을 많이 들려주시



는 기록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일정상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을 위해 멘

토로 나서 주신 서영호선배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대영 기자 idy@

늦가을에 이뤄진 환상적인 별빛체험

해남 황산초 '누르메 별바라기' 행사 진행

지난 11월 28일 황산초등학교(교장 김형만)는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황산초등학교 옥상과 교실에서 '누르메 별바라기' 행사를 진행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행사에는 8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했다.

황산초등학교는 밤하늘을 관측하며 천문과 우주에 대한 학생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자유탐구능력을 신장시킬 목적으로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체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학생들을 3팀으로 나누어 '천체 관측 컴퓨터 프로그램 체험', '쌍안경과 함께하는 별빛 체험', '천체망원경을 통한 행성 관측 체험'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교실에서 이루어진 '천체 관측 컴퓨터 프로그램 체험'에서는 교사와 함께 별과 별자리의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후, '별바라기'이라는 천체 관측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익히고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밤하늘의 별자리를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몇몇 학생들은 흥분을 감지 못했다.

다. 동시에 옥상에서는 '쌍안경과 함께하는 별빛 체험'과 '천체망원경을 통한 행성 관측 체험'이 이루어졌다. '쌍안경과 함께하는 별빛 체험'은 스마트폰 별자리 관측 어플로 밤하늘의 별자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쌍안경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체험으로, 학생들은 천이나 교과서에서 보던 별자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천체망원경을 통한 행성 관측 체험'은 태양계 행성 중 하나인 금성을 천체망원경으로 관측하여 학생들의 기쁨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가한 5학년 김모 학생은 '수업 시간에 배운 북극성과 별자리를 학교 옥상에 직접 관측해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금성의 노란 빛은 쌍안경 거울에 남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두 눈을 반짝였다. 한편 황산초등학교는 이번에도 높은 호응과 참여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추하추동) 4차례에 걸쳐 '흔하추동 누르메 별바라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영 기자 kyy@



"교육공동체 모두가 노력해야 교육발전 이뤄"

강진교육지원청, 2016. 교육감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박 건)은 지난 29일 오후 2시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강진, 해남, 영암, 완도지역 교직원, 학부모, 지역민, 교육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의 미래, 교육에서 희망을 찾다'라는 주제로 '2016 교육공동체와 교육감과의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런 교육감 토크콘서트는 주길성 강진교육발전협의회의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패널에

강진, 해남, 영암, 완도의 지역민,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교직원 대표 6명이 참여하여 전남교육정책 추진방향, 교육 현안문제 등에 대해 정만재 전라남도교육감과 질문-답변, 자유토론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교육·토론포럼, 자유학기제, 무지개교육, 교사역량강화, 미래핵심역량 교육, 학생부종합전형대비 등에 관한 지층적이며 구체적인 정책제안과 논

어촌소규모학교의 특색을 살리는 학교교육과정 다양화 방안'에 관해서 심도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정만재 교육감은 "전남의 밝은 미래는 교육에 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고 존중과 배려 속에서 생활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은 인성을 바탕으로 소통능력, 자기주도성, 창의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전남교육의 희망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손덕영 기자 sdw@

에는 대형 서점에서 둘러 학생들이 책을 읽고, 구입하는 체험도 실시되었다.

이날 처음으로 스케이트를 타본 김모 학생은 "인라인스케이트는 탈 줄 알기 때문에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도 잘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타보니 생각처럼 잘 안타졌다. 영암방아도 10분 넘게 썰었지만 재미있었고 내년에 또 오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대영 기자 idy@

책과의 만남, 꿈과의 만남 완도 금일초, 작가와의 만남 실시

완도군 금일초등학교(교장 권병두)는 11월 28일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꿈을 주제로 한 작가의 강의를 들으며 학생들의 직업체험교육에도 이바지하고자 이루어진 것이다. 책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독서 골든벨 행사와 학년군별 1~2교시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작가와의 만남 행사는 3~4교시에 학교 금묘관에서 실시했다.

독서골든벨 행사는 각각 독서관과 금묘관에서 실시되었는데 교사리 손으로 골든벨 관을 들어올리며 읽은 책과 관련된 문제를 푸는 모습이 자못 진지하였다. 각 학년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학부모단체에서도 함께 참석해 주신 작가와의 만남 행사에서는 <천년의 사랑 작지>, <1등 불구>, <김 반장의 탄생> 등 여러 동화책을 쓰신 동화작가 조경희 작가의 '꿈'을 주제로 한 강의와 대화의 시간 및 작가 사인회, 사진촬영의 시간이 이어졌다. 시골 소년기 작가의 꿈을 가지게 된 계기, 그리고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화 작가가 되어 유네스코까지 홍보대사가 되는 등 꿈을 이루기까지의 이야기, 학생들이 꿈을 가지게 된 꿈의 이유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자세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작가와의 대화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4학년 박정현 학생은 "작가님과 더 많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손을 다섯 번이나 들었어요. 저도 작가처럼 멋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으며, 함께 행사에 참여한 백승준 교감은 "문화 인프리카가 잘 지켜져 있지 못한 도시의 학생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다 싶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경영 기자 kyy@



꿈동이들의 전라북도 탐방기

보성 회천서초, 수학여행 실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회천서초등학교(교장 안형호) 꿈동이 5~6학년 학생 8명은 전라북도 탐방에 나섰다. 탐조 경주초에 정되어있었던 수학여행 장소가 자연재해로 인해 전부 곳곳으로 옮겨지면서 꿈동이들은 수학여행에 가기 전부터 워크북을 살펴며 일정과 장소를 숙지했다.

첫째 날은 고창읍성을 시작으로 고인돌 박물관, 근대 역사박물관 등을 탐방하며 우리 나라 역사를 알아보고, 둘째 날은 한지체험을 한 후 고운한복을 차려입고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 마차 조선시대 도령과 아가씨 된 듯 태조로를 누비며 조선의 거리를 온몸으로 느꼈다. 셋째 날은 전주동물원에 가서 여러동물들을 보고, 입실지드레마파크에 가서 치즈체험을 했다.

5학년 이희승 학생은 이번 수학여행을 통해 신기한 것도 많이 체험하고 재미도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평소에도 볼 수 없었던 동물



들을 볼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다고 귀엽게 소감을 말했다. 이번 수학여행은 한지를 만드는 과정이 어려울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쉬워서 놀랐으며 이번 수학여행 일정이 무척이나 즐거웠으며 다음에도 또 전주에 오고 싶다고 했다.

수학여행기간 동안 회천서초등학교 꿈동이들은 올바른 관람문화, 질서 지키기에 앞장섰고, 큰 사고 없이 2박3일간의 수학여행을 마무리함으로써 훌륭한 수학여행이 됐다. 손덕영 기자 sdw@

(유) 하나로합정

방역 (韩语/소속) / 전담 관리 / 자유로 협소
 학생관리용역 (통역/일주휴소)
 TEL : (06) 324-5222 / H.P : 010-8888-2678

전남 합정군 합정읍 영수길 198-1번지
 FAX : (06) 323-0036
 E-mail : hsb3222@hanmail.net

대 동 방 역

방역 / 살군 / 살총
 TEL : (06) 324-2931 / H.P : 010-8514-8006

영업종목

간이상수도청소

마름 잔여 소규모 급수 시설, 학교, 군부대 도시 지역, 편산 등

공간소독

하이드로 지하 주차장, 상가 주차장, 공장내부 작업 환경 등

무인자동살균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구내식당 등 집단 식음 예방